

# 은행권 대출금리 인하 러시

### 여론·당국 압박...신한·국민·우리銀 등 2~3%P 내려

## 영업점장 전결금리 적용 권한도 제한

시중은행들이 대출 최고금리를 앞 다퉈 내리고 있다. '고부족' 기준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영업점장의 전결금리 적용 권한도 속속 제한하고 있다.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짝짜미 의혹과 대출서류 조작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데다 감독 당국이 가산금리 비교공시안을 내놓는 등 대출금리 인하를 압박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신한은행은 7일 서민금융·중소기업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가계대출 최고금리를 17%에서 14%로, 기업대출 최고금리를 15%에서 12%로 3%포인트씩 인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이용했던 고객을 대상으로 한 연 14%대 금리의 서민전용 대출상품도 선보인다.

신한은행은 또 영업점장이 임의로 금리를 높이거나 낮출 수 있었던 '금리전결권'을 제한해 대출금리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방법은 여신금리체계 개선 태스크

크로스팀(TFT)에서 논의 중이다.

KB국민은행도 이달 중으로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최고금리를 현행 연 18%에서 15%로 3%포인트 내린다.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보증을 받아 이용하는 보증부여신은 최고금리를 18%에서 13%까지 5%포인트 낮춘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정부의 서민·중소기업 금융지원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대출 최고금리를 낮추기로 했다"면서 "전산 개발을 마치고 이달 중으로 일선 영업점에서 인하된 금리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이달 13일부터 가계대출 최고금리를 현행 연 16%에서 14%로 2%포인트 인하한다. 서민지원을 위한 대출상품인 새희망플러스 대출 금리도 연 2%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우리은행도 현재 17% 수준인 대출 최고금리를 낮추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인하폭을 검토하고 있다.

IBK기업은행은 이달 1일부터 중소기업

대출 최고금리를 현행 연 12%에서 10.5%로 인하했다. 연체대출 최고금리 역시 연 13%에서 12%로 1%포인트 낮췄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9월 연체대출 최고금리를 연 18%에서 13%로, 올해 초부터는 중소기업 대출 최고금리를 연 17%에서 12%로 내렸다.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대출금리를 인하는 것은 자금 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과 '빚 폭탄'을 안은 가계의 부담을 은행이 덜어줘야 한다는 여론을 고려한 조치다.

CD금리 담합 의혹, 대출서류 조작 논란 등으로 땅에 떨어진 신뢰도를 회복해야 하는 점도 대출금리 인하의 압박 요인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권에 대한 금지 않은 사회적 시선 때문에 은행들이 금리 인하 압박을 받았다. 그러나 금리 인하 경쟁이 너무 치열해져서 은행 수익이 감소하면 장기적으로는 고객에게 피해가 갈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다.



## 삼성전자 S펜 적용 '갤럭시 노트 10.1' 글로벌 출시

삼성전자는 태블릿PC '갤럭시 노트 10.1'을 독일·아랍에미리트연합(UAE) 등 유럽과 중동 지역에서 출시한다고 7일 밝혔다. 갤럭시 노트 10.1은 '갤럭시 노트'의 디지털 필기구 'S펜'을 10.1인치 태블릿PC에 적용한 제품으로, 지난 2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월드포럼(MWC)에서 처음 공개했다.

# 광산구 대형마트 의무휴업

### 조례 개정...이르면 내달 23일부터 효력

광주 광산구의회는 7일 제185차 임시회를 열고 '광주시 광산구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광산구는 개정된 조례를 이번 주중에 공포하고 30일간의 조례시행 예고수령과정 등을 거친 후 이르면 오는 9월 23일부터 조례가 효력을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역 내 대형마트 4곳과 기업형슈퍼마켓(SSM) 2곳은 다음달 넷째주 일요일부터 의무휴업을 실시해야 한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는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이 규정한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확보했다.

'구청장은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해 휴업을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할 수 있다'로 개정했다.

또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로, 의무휴업일은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다'로 수정했다.

광산구는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광산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최권필기자 cki@

# 폭염 폐사가축 보상 요구 못물

### NH농협손해보험 전남북만 11만여마리

불볕더위로 죽은 가축을 보험으로 보상해달라는 요구가 속출하고 있다. 보상 접수 개시 보름 만에 폐사 가축이 25만마리를 넘어섰다.

NH농협손해보험은 폭염으로 추가 피해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최대 사흘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비상 체제로 돌입했다.

NH농협손보는 7일 오후 3시 현재 폭염 피해 보상신청이 132건, 25만7027마리에 달했다고 밝혔다.

NH농협손보는 올해 처음으로 가축재해보험의 보상 범위에 '폭염'을 신설했다. 지난달 20일부터 피해를 접수한 점을 고려하면 하루에 1만5000만여마리씩 보상신청이 들어온 셈이다.

가축재해보험은 자연재해, 화재, 사고, 질병 피해를 보상해준

다. 가입과 보장 기간은 1년이다. 올해부터는 보장 범위에 폭염이 신설돼 가축이 더위로 폐사한 것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초기 단계라 소나 말을 제외한 닭, 오리, 돼지 등 일부 가축만 보상 받는다.

원더위로 폐사한 닭만 24만8천500마리로 전체 폐사 신고 가축의 96%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전북이 8만5500마리 가장 많았다. 이어 충남 5만9800마리, 경남 3만6200마리, 전남 2만7500마리, 경기 2만6500마리 순이다. 오리 또한 8200마리가 죽어 폭염 보험 보상 신청이 들어왔다. 이 가운데 8100마리가 전북에 집중됐다.

폐사한 돼지를 보상해달라는 요구는 327마리에 그쳤다.

# 화인코리아, 사조그룹 공정위 제소

### "불법 채권매입 자사 인수 시도"

화인코리아는 7일 "사조그룹이 합법이라고 주장해온 채권매입행위가 불법으로 드러나 사조그룹과 관련자들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화인코리아는 사조그룹이 기획실을 비롯해 사조오양, 사조대림, 사조시스템즈, 사조바이오파드, 사조인터그레이션 등 5개 계열사가 관여해 불공정거래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화인코리아는 "지난 1월 사조오양이 이사회 결의를 통해 유령회사인 애드윈플러스에 50억6000만원을 대어해 50억원의 채권을 매입하고, 7월에도 137억8092만원을 대어해 농협 채권 135억원을 매입했다"고 지적했다.

화인코리아는 또 "애드윈플러스는

2010년 매출액이100만원에 불과하고 신용평가 제의 등급인 'R'등급 회사로, 대출 자격이 없다"며 "사조그룹 기획실 및 사조오양 등 관계자들이 부당하게 자금을 대어하고 각종 업무 및 인력, 비용 등을 지원해왔다"고 덧붙였다.

화인코리아는 "불법행위가 그룹 차원에서 이뤄졌으며, 부당 지원에 따른 과징금은 약 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강조했다.

최신 화인코리아 사장은 "만약 화인코리아의 파산이 정말로 실현된다면 사조그룹은 애드윈플러스가 보유한 무담보채권 43억6105만원을 고스란히 떼일 수밖에 없다"며 "이 자금을 대어해준 사조오양이 큰 손실을 입게 되는데 누구를 위해 파산을 원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최 사장은 "이제라도 사조그룹은 불법으로 매입한 채권액을 화인코리아가 법 절차에 따라 환할 수 있도록 회생 개시에 협조해 달라"고 호소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코스피지수	1,886.80 (+0.92)
코스닥지수	471.60 (+1.99)
금리 (국고채 3년)	2.78%
원·달러 환율	1,128.80원 (-0.20)

※수치는 전일 종가 기준

# 기업부채 위험단계 넘었다

### GDP 대비 107%...가계부채도 빨간불

국내 기업들의 부채가 급격히 늘어나 대규모 부도·파산 위험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가계 부채도 위험 단계에 도달해 현재 수준에서 억제하지 않으면 국가 경제 성장을 위협할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7일 금융권과 보험연구원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 부채는 2011년 1분기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07%에 달해 위험 단계를 넘어섰다.

일반적으로 GDP 대비 부채 수준이 기업은 90%, 가계는 85%, 정부는 85%를 초과하면 GDP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 GDP 대비 기업 부채는 외환위기가 충격이 확실한 2000년에 93%까지 올라갔으나 2004년 78%로 낮아졌다. 그러나 2008년에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107%로 다시 치솟았고 이후

2009년 110%, 2010년 104%를 기록했다.

2008년부터 기업들이 막대한 빚 상환에 시달리고 있다는 의미다. 올해는 수출마저 급감한 탓에 기업부채가 GDP 대비 110%를 돌파했을 가능성이 크다.

가계 부채도 위험 단계를 넘어 위기 단계로 악화할 조짐을 보인다.

2001년 1분기 기준 GDP 대비 가계 부채는 81%로 위기 단계로 접어들었다. 가계 부채는 2000년 GDP 대비 48%, 2004년 66%, 2008년 78%, 2009년 81%, 2010년 80%로 증가 추세를 보인다.

우리나라 정부 부채도 상승세가 가팔라 재정 원적 등 안전장치가 시급한 실정이다.

## 스피치커뮤니케이션 전문교육

스피치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진정한 당신의 경쟁력입니다. 설명을 잘하는 사람! 설득을 잘하는 사람! 공감할 이끌어 내는 사람!

어디서나 배울 수는 있어도 아무나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휴먼스피치'에서는 전문교수의 특별한 지도를 받습니다!

**탈출!! 스피치불안증**

### 스피치커뮤니케이션 전문교육과정

주요 교육 내용	주요 교육 내용
1. Orientation 스피치커뮤니케이션의 원리 이해	비언어적 스피치시스템
2. 비언어적 스피치(Body-motion)의 중요성	Vocal 요소 훈련(목소리소스 트레이닝)
3. 언어적 스피치시스템	비언어적 요소 훈련 실습훈련
4. 논리적 메시지구성	스피치발언준비
5. 감정적 스피치시스템	Attention skill
6. 논리적 메시지구성	스피치발언준비
7. 감정적 스피치시스템	스피치발언준비
8. 논리적 메시지구성	스피치발언준비
9. 감정적 스피치시스템	스피치발언준비
10. 논리적 메시지구성	스피치발언준비
11. 감정적 스피치시스템	스피치발언준비
12. 논리적 메시지구성	스피치발언준비
13. 감정적 스피치시스템	스피치발언준비
14. 논리적 메시지구성	스피치발언준비
15. 감정적 스피치시스템	스피치발언준비

휴먼스피치문화원 대표/원장 이진학

- 휴먼스피치문화원 / 휴먼AD / 휴먼Leader 대표
- 영남대학교 연세대학교 경서대학교
- 영남대학교 경서대학교 경서대학교
- 휴먼포럼 지도교수

휴먼스피치문화원 교육의 특징

1. 탄탄한 원리와 기법을 바탕으로 체계화된 교육을 실시합니다.
2. 스피치를 통해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기법을 터득합니다.
3. 스피치발언준비에서부터 자신감 스피치까지 심층교육을 합니다.
4. 전문교수 및 강사진으로 교육생 한분 한분을 책임집니다.
5. 교육이후 후 원모임을 통해 지속적인 보수교육을 제공합니다.

휴먼스피치문화원 HUMAN CULTURE CENTER

문의 1588-6117

## 아이엘리시아

특허청 서비스표등록 제41-0187289호

### 150여가지의 즉석메뉴(샐러드, 양식, 일식, 중식, 한식)를 온 가족이 마음껏 취향에 따라 드실수 있는 즉석 프리미엄뷔페!!

예약문의 062)671-1199 | 광주중합버스터미널 2층

가격안내 (이용시간: 11:30~22:00)

- 평일 성인(중학생이상) 25,000원
- 토·일·공휴일 성인(중학생이상) 29,000원

24시 유스퀘어사우나

각종 편의시설 수면실(침대) · 인터넷 · 안마기 · 세션 · 세화

유스퀘어 2층 아이엘리시아 옆 문의전화 062) 352-4455 | 터미널 주차장 2시간 무료